

# 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9, 성전, 회당 및 산헤드린

© 2024 Tony Tomasino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안토니 토마시노(Anthony Tomasino) 박사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9회기, 성전, 회당, 산헤드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대 역사의 이 시기에 매우 두드러진 몇몇 제도, 그리스인의 도래로 인해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은 제도 중 일부를 잠시 멈추고 살펴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는 그리스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중 일부는 이러한 기관 중 일부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과 회당과 산헤드린,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 시대에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그리고 이 시대와 유대교의 미래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맡게 될 역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너머의 시대.

그럼 먼저 성전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전이 본질적으로 성막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언약궤를 모실 곳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 언약궤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실 것이었습니다.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도 한동안 장막과 그 밖의 여러 지역 장소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성막을 대신하여 언약궤를 모시는 처소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시는 주요 처소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윗이 왕이 된 후 그의 아름다운 집에 살다가 밖을 내다보며 성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는 여기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다윗아, 너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이어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 짓기에 관한 놀라운 작은 말장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를 위해 집을 짓고 싶어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라는 의미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 뒤를 이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기원전 921년에 지어졌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지은 반면, 솔로몬의 성전은 페니키아 장인들이 지었고 페니키아의 성전 양식과 매우 유사하여 생각하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곳은 요시야 왕이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유일한 장소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한 곳에 두실 것인지, 자신이 선택하실 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실 것인지, 그리고 그 곳에서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온 땅에 산당을 만들고 그 지방에 여호와를 경배하는 여러 산당을 세웠으나 요시야가 개혁을 행할 때 그 지방 산당을 다 헐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오직 여호와께 제사만 드려라 하였느니라 이 성전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언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전에서 이 일을 함으로써 모든 백성을 한자리에 모았고, 모든 일을 대제사장의 감시 아래 두었습니다.

이제 이것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일부 지역 신사에서 편한 직업을 섬겼던 많은 사제들이 이제는 실직하거나 일부 시간만 고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다음과 같은 큰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 만약 성전이 파괴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의 성전이 있어야 하고 하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위치해야 한다는 이 생각은 민족 의식에 매우 강하게 심어졌는데, 이는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존재하는 다른 성전에 대해 읽는 것을 다소 아이러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엘레판티네(Elephantine)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은 문이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위치하였습니다.

트랜스요르단 지역에도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집 역시 문이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원 각각에서는 동물 희생이 금지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예배의 집에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위해 동물을 잡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7년에 파괴되었고 그 후 제2성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예술가의 표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처음 지어졌을 때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동일한 일반적인 패턴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찰에 사용된 문양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축 스타일의 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축이 중앙으로 곧장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번째 성전은 계속해서 동물 희생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장소 역할을 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건물은 광범위하게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스모니아 왕조에 이르렀을 때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처음 건설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특히

제2성전은 예배 장소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중심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이곳이 요새였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성전 벽 안에 피신한 제사장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벽은 두꺼웠습니다. 그들은 강화되었고 이곳을 난공불락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종종 성전 안으로 피신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닫고, 성문에 빗장을 치고, 포위 공격이 일어나는 동안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원에는 부유한 후원자들이 많은 돈을 예금해 두었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제2성전 시대에는 이곳이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유대인들은 현재 지중해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야만 하는 특정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순례자의 희생을 치르기 위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동물을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그 동물들을 사서 희생 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종류의 남용에 열려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역 중에 지방 정부의 주화를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화로 바뀌어서 동물을 파는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셔야 했던 작은 사건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적절한 동물로 간주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헤롯 대왕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몇 번의 강의를 통해 헤롯 대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성전은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헤롯은 정말 위대한 왕에게는 정말 훌륭한 성전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 많은 신전을 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신전을 원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우구스투스와 경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가 지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웅장한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야망에 맞는 건물을 짓기 위해, 그는 문자 그대로 성전 산 꼭대기를 수평으로 만들고, 자신이 앞으로 만들 이 성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돌, 즉 쇄석으로 건축해야 했습니다. 건물. 그는 오래된 성전 주위에 새 성전을 짓고, 그것을 분해한 다음, 문을 통해 꺼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롯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헤롯의 성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고대 세계의 위대한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기원전 19년은 작업이 시작된 때이며, 내가 말했듯이 기존 사원 주변에 지어졌습니다.

이제 성전의 종교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성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다. 쉼키나,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이 그 장소에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이곳은 그들이 모든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다른 곳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 한동안 유대인들이 제사 제도를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다소 흥미롭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동물 희생을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살고 있을 때, 시카고 북쪽 지역에서 닭으로 제사를 지내던 초정통 유대교 공동체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욕

키푸르(Yom Kippur) 의식은 1년에 한 번씩 유대 민족의 집단적 죄를 없애는 의식입니다.

행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뿐이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성전을 주로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대교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유대인 예배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 됩니다. 대제사장 중 다수는 사두개인파의 일원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의 성전에서의 활동을 불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성전과 그 의식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유대 종파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성전과 그 리더십에 어느 정도의 권위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 분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원의 시민적 중요성은 물론 금융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관을 위해 많은 부가 그곳에 예치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제들은 종종 지역 치안판사로 봉사했습니다.

성전 경내에서는 너무나 많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대제사장의 권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 중 상당수가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는 사두개파의 권력의 상당 부분이 성전에 대한 통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 성직자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권은 세습되는 직분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고대 전통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현대 과학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론과 제사장들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이든, 코헨이든 말이죠.

대제사장 가문이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코하님 가문의 코헨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계통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대규모 계보 연구가 행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족보를 보면 대제사장의 후손인 고하님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한 개인의 후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랄 만한. 물론 제사장들은 주로 성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의 독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는 제사장을 엄격하게 지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이 부업을 가졌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이르렀을 때 신권은 우리가 코스라고 부르는 1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각 코스 또는 세 코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코스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무가 끝나면, 그들의 코스의 봉사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의 희생을 위해 종종 그들은 매일의 희생을 수행할 사람을 추천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그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그에게 알려졌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그러한 희생을 바쳐야 하는 사람들은 희생의 일부를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희생 제물의 고기는 봉사하고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제사장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 서로 다른 제사장들이 다른 제사장들을 속여 지정된 몫을 빼앗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서기 70년 로마에 대한 대반란이 일어나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 중 일부가 실제로 굶어 죽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물론 이것은 그가 종교적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론의 장남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거듭될수록 누가 대제사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속죄일 의식을 거행하는 종교적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이다. 아시다시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합니다.

왕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했다. 그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외국 영주들에게 총독이나 유대인 대표로 어떻게 봉사했는지 자주 보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왕들이 그러했고, 외국 왕들이 총독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외국 군주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를 진정한 인기로 만들었을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일과 잘 어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또한 산헤드린의 수장으로도 봉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몇 분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책임은 신구약 중간기에 걸쳐서 변화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종 왕들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동료였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아론 시대 이래 주요한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대개 왕의 지지자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는 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이르러 대제사장의 역할이 조금씩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 의식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성직자는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 구약성서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이나 다른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제사장들의 발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말라기가 말하는 바는 여러분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입에서 지혜를 구해야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던 슬픔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 땅에 일종의 기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화를 내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합당한 희생을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서로를 올바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신부님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올바른 일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중간기 말기에는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서기관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서기관은 일종의 삶의 새로운 측면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서기관에 관한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서기관들에 대해 많이 읽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적입니다. 그러나 벤 시라의 책은 외경에 있습니다. 이 글은 기원전 2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벤 시라(Ben Sira)는 대제사장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예복을 입고 의식을 수행하는 모습 등을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을 교사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시 서기관들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율법을 배운 사람들, 종교적 전통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텍스트 복사 등을 담당하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계층 출신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사하는 사람에서 복사한 텍스트를 읽고 이러한 법칙 등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200년에는 가르치는 책임 중 일부가 제사장의 어깨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서기관들의 어깨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대제사장과 시민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는 그 직위의 명성을 약간 높였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이미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처럼 행동해 왔지만, 하스몬 왕조가 운영할 수 있는 권위나 독립성을 가지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스몬 왕조는 그리스의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기본적으로 전쟁 영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에게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무실의 지위를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자, 헤롯은 질투가 심해서 모든 권세와 모든 공권력의 대제사장직을 쳐부수었습니다. 따라서 위아래로, 앞뒤로, 대제사장 직분은 실제로 아론 시대부터 훨씬 후대까지 유대의 정치적인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시대 이후 로마 총독 밑에서 로마인들은 특히 유대와 예루살렘의 행정에 대해 종종 손을 대지 않는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다시 한번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이 평화를 유지하고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회당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회당에 관한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등장했는지에 대한 추측이 있었습니다. 대중적인 이론 중 하나는 바빌로니아 유배 기간에 처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바벨론에 거주할 때에 모여서 전통을 연구하고 조상의 믿음을 서로 권면하기 시작하였더라.

말된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당과 같은 모임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즉 회당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실제로 바빌론 유배 이후 꽤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의식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회당은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많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이러한 것들이 바빌론 유배 기간에 유래했다는 생각이 그다지 장점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당의 존재에 대한 초기 증거가 그 형성에 상당한 그리스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회당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는 기원전 200년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명판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기도의 집이라고 불렀던 건물의 봉헌을 기록한 명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당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것은 함께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단지 함께 앉아 있거나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잘 결합된 아이디어는 실제로 이것을 번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그리스식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조립됩니다. 당신이 그것에 직접 접근한다면, 그들은 민주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지도자는 남자입니다. 물론 항상 남자들이죠? 그리고 회당장과 같은 사람과 회당에서 여러 직분을 맡을 다른 직분자들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집례하는 목사나 랍비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회당은 유대인을 제외하면 교회와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월급을 받는 랍비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립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배우고, 예배하고, 그런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장관이 없었어요.

집례하는 랍비가 없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순회 교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라는 칭호는 실제로 신약성서에서 처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는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책을 읽고 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랍비 학교에 다녔다는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특정 부나 특정 수준의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그런 종류의 훌륭한 토론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철학자들도 본문을 읽은 다음 앉아서 본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텍스트를 놓고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텍스트에 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아카데미나 그와 비슷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 스타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건축학적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정교한 회당을 재건축한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다지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종 두루마리가 있는 경우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틈새가 있을 것입니다.

발코니는 종종 관찰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 관찰자들은 여자일 수도 있고,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층에는 물론 유대인 남자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일부 회당은 이 시기 초기에도 여성을 회당에 받아들였으며, 특히 좀 더 평등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부분 남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유대 밖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했던 모든 인공물이 여러분 주변에 없고,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모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 학습 장소입니다.

법률 교육. 그리고 회당은 분명히 성경을 읽는 장소였습니다. 회당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장소마다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 중 하나는 그 자리에 제사장이 있으면 회당 예배는 축도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참석하신 분이 없다면 그들은 축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작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가끔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토론, 독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전부입니다. 자선단체를 모으고 배포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각 회당에는 사람들이 들어와 자선 단체에 예금을 하는 문 앞에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회당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곤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교의 또 다른 기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다른 그리스 혁신이 있습니다. 음,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다시 한번 산헤드린입니다. 이번에는 sunedrion이 함께 앉아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그리스 시대에 존재했던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각 도시에 장로회를 두는 매우 오래된 관행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산헤드린은 지역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소규모 도시에서는 성인 23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랍비의 규칙에 따르면 특정 규모의 모든 도시에는 산헤드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은 대산헤드린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규칙과 큰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분쟁이나 민사적인 분쟁은 산헤드린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산헤드린 의 의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에는 종종 다양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장로들이 참여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 되기 위해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지는 실제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기 랍비 문헌을 통해 결혼하고 4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그리고 아마도 예수 시대에도 산헤드린은 그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조직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 생활의 중요한 사건에 관해 함께 모여 결정을 내리는 마을의 장로들과 성인 남성들의 일종의 자발적인 연합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역시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토론 정신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볼 수 있는 정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회당은 주로 디아스포라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 밖의 지역 사회에 존재했고 나중에 유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존재했던 헬레니즘 정신을 실제로 흡수했습니다. 반면에 산헤드린은 자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조직이 다가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제사장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산헤드린의 권력이 누가 지휘권을 갖고, 누가 지휘권을 행사하고 줄을 당기는지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두 번째 성전 기간 동안, 즉 성서 중간 기간의 대부분 동안 산헤드린은 대제사장 제도에 대한 이차 기관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토니 토마시노(Anthony Tomasino) 박사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9회기, 성전, 회당, 산헤드린입니다.